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1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가져	2
서프라이즈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3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4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5
엔사이드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6
江原日報	11면	횡성 국힘 당원 송년회	7
강원신문	온라인	횡성군 바르게살기,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8
MBC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 감사위원회,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특정...	9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2024 강원 유치 불구 선수지원 인색"	10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의	10
江原日報	03면	“2024강원 조직위 시·군 공무원 파견 개선 필요”	11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 '희망 2024 나눔캠페인'	12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군자원봉사대회 우수봉사자 22명 표창	12
강원도민일보	02면	2023 해외관광포럼	12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1주기 추모물결	13
江原日報	온라인	김용래 도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추모...다음엔 꼭 개...	14
CBS		'12살 손주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1주기..."제조물책임법 ...	15
강원도민일보	04면	제4회 강원인술대상에 건강관리협 강원도지부	1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7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시성(왼쪽)·강정호(속초) 도의원	1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8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찬흥 도의...	18
강원도민일보	04면	권익위, 도교육청 출장비 부당 수령 1만824건 적발	19
강원도민일보	05면	공무원 400여명 올림픽 차출 "업무 공백" vs "협의 완료"	19
강원도민일보	02면	'전자칠판이 뭐길래' 업체 선정·보급 확대 적법성 쟁점 부상	20
강원도민일보	01면	적자난 빠진 공공의료원 예산지원 촉구	20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평장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초읽기	21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강문~안목해변 솔밭길 맨발로 걸어요"	21
강원도민일보	15면	양구 파로·소양호 불법 어업 단속선 투입	22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 온천-한옥 접목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22
江原日報	04면	횡성 가축경매시장 폐쇄 장기화 … 축산농가 시름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이젠 실천으로 옮겨야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장관직 지역 균형'도 엄중한 민심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교육청 전자칠판 획일 추진 재고해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내년 초교 입학생 수 道 1만명 붕괴, 대책 시급하다	27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인물 22면

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5일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 한중일)를 통해 항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200만원)에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의장실에서 씰 증정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년 12월 05일 (화)
에너지경제
종합

강원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가져

박에스더 ess003@ekn.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권혁열 의장, 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개최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권혁열 의장은 5일 오후 한중일 대한결핵협회 강원자치도지부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결핵환자 퇴치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증정식은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에 대한 범 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권혁열 의장, 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그리고 한중일 회장과 진광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열 의장은 "여전히 한해 14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 이번 전달식이 작은 보탬이 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서프라이즈뉴스

2023년 12월 05일 (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김준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서프라이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을 위한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정식은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퇴치사업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한중일 회장, 진광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한중일 회장으로부터 2023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한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권혁열 의장은 “여전히 한해 1,4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며 이번 전달식이 작은 보탬이 되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누리일보, 신아일보 등 43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인물 21면

도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권혁열)는 5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장:이돈섭)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12월 05일 (화)
종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정찬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일 오후3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일 오후3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김기홍 부의장,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돈섭 회장, 박계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돈섭 회장에게 특별회비 3백만원을 전달했다.

권혁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강릉산불, 태풍 ‘카눈’ 등 재난이 닥칠 때마다 늘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발맞춰 2024년도에도 도민 여러분들게 희망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2023년 12월 05일 (화)
엔사이드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김아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일(화) 오후 3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김기홍 부의장,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돈섭 회장, 박계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돈섭 회장에게 특별회비 3백만원을 전달했다.

권혁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강릉산불, 태풍 ‘카눈’ 등 재난이 닥칠 때마다 늘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여러분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발맞춰 2024년도에도 도민 여러분들게 희망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명성일보 등 42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1면

횡성 국힘 당원 송년회

【횡성】횡성지역 국민의힘 당원 송년회가 열려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국민의힘 횡성지역 당원 모임인 좋은사람들, 청년위원회, 나눔봉사단이 지난 4일 우천문화체육공원에서 진행한 '국민의 힘 송년의 밤' 행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심재섭 영월군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이 초대됐고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표한상 부의장, 김은숙·박승남·정운현 군의원과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등이 동참했다.

유학렬기자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12월 05일 (화)
지역

횡성군 바르게살기,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조남식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협의회장 박봉교)는 5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협의회장 박봉교)는 5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와 김영숙 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등의 내외빈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 강연, 유공자에 대한 표창, 인사말 및 축사 등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김명기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께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실천해 주셔서 행복과 희망 넘치는 횡성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진실, 질서, 화합의 바르게살기 운동 3대 이념 실천을 바탕으로 횡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봉교 협의회장은 “올해도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밝은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중심으로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조남식 기자 gwnews@hanmail.net

2023년 12월 05일 (화)
MBC 강원영동
강원

강원도 감사위원회,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특정감사 실시"

조규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 촉구 건의에 따라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이번 주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청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강릉 옥계지구 6만여 ㎡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넘기기로 했지만,
관련법상 무상 제공이 불가능한 부지로 확인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3면

도의회 "2024 강원 유치 불구 선수지원 인색"

문관현, 동계종목 예산 부족 지적

문관현 지광천 양숙희

강원도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 종목 선수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5일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도 강원도 동계 종목 지원 예산이 5억8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선수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편성 예산이) 선수는 육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동계올림픽이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기업 활성화"라며 "(선수들이) 대관령에 있는 리조트에 들어가면 지역 체험 기회가 적은데, 지역 문화유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숙희(춘천) 의원은 "문화예술과 19개 사업, 문화유산과 16개 사업이 강릉시 사업이고, 신규 사업 예산이 각 9개, 6개 등 강릉시에 편중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의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의에서 조성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2024강원 조직위 시·군 공무원 파견 개선 필요"

도의회 예결특위 지적 … 조직위 "대체투입 등 검토"

속보=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군 공무원 파견이 무리(본보 5일자 4면 보도)하다는 주장이 불거지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정치권도 개선을 요청했다.

5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영욱(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파견 공무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며 "업무 공백에 대한 예산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인력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국제 대회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며 "대회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은 "조직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시·군, 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경비 부담도 말한 것"이라며 "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특위가 구성해주셔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정부도 새만금 사태 이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 도당도 '과도하고 졸속적인 공무원 차출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고 파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행정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개입해 시·군 행정 공백 최소화와 파견공무원 처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파견인력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비공무원 대체 투입과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여성·청년 농업인 등 농업 예산을 제대로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4면

평창 '희망 2024 나눔캠페인' 평창군의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집중모금 행사가 5일 평창전통시장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 최종수 도의원, 최창순 NH농협군지부장, 고홍재 군자원봉사센터장, 이욱환 문화원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현장모금과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4면

영월군자원봉사대회 우수봉사자 22명 표창

영월군자원봉사센터가 5일 오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 도의원 등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하는 자원봉사, 함께하는 행복 영월!' 슬로건의 올해 영월군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대회 우수봉사자 시상식에서는 신명화 주천사랑봉사회장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두 22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다.

또 2000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들에게 수여되는 봉사왕에 김영실 아이코리아 군지회장과 이영자 영월효예술단 등 2명이 선정됐으며 금장과 은장·동장 등 17명에게 명예로운 칭호가 부여됐다. 방기준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2면

2023 해외관광포럼 강원특별자치시대, 글로벌 강원! 한류 관광 브랜딩 전략을 주제로한 2023해외관광포럼이 5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4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1주기 추모물결

김용래 의원 피해자 지원조례 가결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가 1주기를 맞은 가운데 도의원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래(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도현 군의 묘소를 5일 찾아 추모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12세 손자 이도현 군은 목숨을 잃었다.

도현군 아버지 등 유족과 강원도의회 등 지역 정가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국회 개정을 촉구했으나 법 개정은 답보상태다. 강원도의회에선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달 상임위에서 가결돼,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래 의원은 이날 도현이 묘를 방문해 "1주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를 가지고 올 수 있어 다행"이라며 "법률 개정까지 갈 길이 멀지만, 도현이 가족들과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 꼭 개정 법률을 가지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2023년 12월 05일 (화)

江原日報

종합

김용래 도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추모... 다음엔 꼭 개정 법률 갖고 올게요”

지난해 12월6일 강릉 급발진 사고 1주기 맞아 이도현군 묘 방문

김용래(국민의힘.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5일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5일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5일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군의 강릉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김 의원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를 맞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들고 묘소를 찾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족과 도의회 등은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용래 의원은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률 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도현군 가족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다음에는 꼭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12월 05일 (화)

CBS

강원

'12살 손주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1주기..."제조물책임법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핵심요약

김용래 강원도의원 5일 '도현이 묘' 찾아 추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들고 방문
아버지 이상훈씨, 일명 '도현이법' 개정 거듭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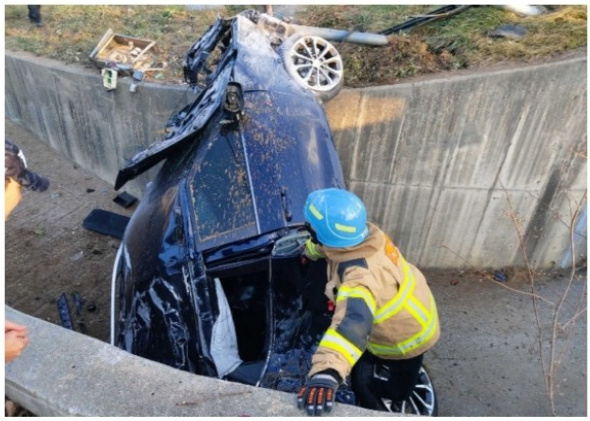
도현 군의 묘비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놓여진 모습. 강원도의회 제공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사망한 지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5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도현 군의 묘소를 방문해 추모했다.

도현 군의 가족과 강원도의회 등은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은 지난 달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상담치료,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례안을 들고 도현 군의 묘를 방문한 김 의원은 "도현이 1주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률 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도현이 가족과 강원도의회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음에는 꼭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현재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전문 증거로 활용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씨와 가족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씨(사진 왼쪽)와 도현군(사진 오른쪽). 이상훈씨 제공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과 함께 제조물책임법(일명 도현이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씨는 "도현이를 떠나보낸지 1년이 되어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겨울이 야속하지만 되돌아 온다"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마음속으로 애타게 부르짖었을 도현이의 목소리...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얼음판을 걷듯 벼랑 끝에 서서 조마조마 하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구멍 하나가 뚫렸다. 도현이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매일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쥐 뜯어낸다"며 "사고 이후 지금까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위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제조사가 결함원인 입증을 책임지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엔사이드, 프레스뉴스 등 41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2월 06일 (수)
강원도민일보
종합 04면

제4회 강원인술대상에 건강관리협 강원도지부

도·본지 공동 주최 27일 시상식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제4회 강원인술대상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가 선정됐다. 보건직공무원 부문에서는 사정옥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주무관이, 의료인 부문에서는 손은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간호부장과 강윤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이 수상한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의료기관 부문에 선정됐다.

2023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는 5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영욱 심사위원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강원도내 의료인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강원인술대상의 의미가 더 와닿는다"고 했다. 2023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2023년 12월 05일 (화)
江原日報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6일 오후 2시30분 정선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 마운틴프라자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에 참석.

이영욱(홍천) 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홍천 석화초교.홍천중 이전 추진위원회 4차 협의회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6일 오후 6시30분 강릉 세인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리는 제25회 임영전통문화예술인의 밤에 참석.

김시성(속초) 도의원은 6일 오후 5시30분 속초 아남프라자 19층 연회장에서 열리는 2023년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 송년의 밤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6일 오후 5시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리는 2023 속초시 체육인의 밤에 참석.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6일 오후 5시30분 평창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4년도 JCI대관령청년회의소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인물동정 16면

김시성(왼쪽)·강정호(속초) 도의원은 6일 오후5시30분 속초아남프라자에서 열리는 2023년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 송년의 밤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인물동정 11면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 6일 오후6시30분 강릉 세인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리는 임영전통문화예술인의밤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인물동정 09면

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찬흥 도의원은 6일 오전 11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제27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4면

권익위, 도교육청 출장비 부당 수령 1만824건 적발

도교육청 "이달 중 자체감사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부대비가 부정적하게 집행되고있다는지적이있어강원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곳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 기록이다.

권익위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모두 1만824건이 적발됐다. 직원 규모로는 103명, 금액으로는 1억258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중 6069건 (7785만원)은 이미 권익위에 소명자료를 냈고 이를 제외한 4755건 (4802만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해 자체감사를 실시,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라며 "1억2587억원 전부가 환수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자체감사와 모든 소명이 마무리돼야 최종 환수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사회 05면

공무원 400여명 올림픽 차출 "업무 공백" vs "협의 완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시·군 공무원 단기 파견

보상·업무대책 놓고 의견 대립
노조 "당장의 편의성만 생각"
조직위, 350명으로 규모 조정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단기 인력 파견을 요청, 조직위원회와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직협 측은 "인력 파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조직위는 "시·군 인사 또는 조직부서와 협의 했다"고 입장을 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당초 각 지자체에 요청한 인력지원은 총 404명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95명이었으며 강릉이 88명으로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청 50명, 평창 47명이 뒤를 이었다. 각 인력들은 본근무지 혹은 강릉, 평창 등 개최지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공무원 노조 측은 반발했다. 현재도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력 파견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 강릉본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187명의 인력 지원을 조직위에서 요청하기도 했다"며 "일선 시·군 인력 차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한 것도 논란이다. 공무원노조 정선본부 관계자는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비도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며 "지역 입장에서는 대회가 잘되면 좋지만 (조직위가) 당장의 편의성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와 직협은 5일 평창에 위치한 조직위원회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와 직협은 '시·군 차출 인력 최소화'와 '파견 비용 조직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이미 각 시·군 인사와 조직부서에 설명과 협의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강원도내 시·군의 적극 협조로 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우선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파견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공무원 대체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전체 400여명 규모에서 35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인력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무 기간을 20일 정도로 설정하고 비공무원 대체 투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체류비와 출장비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 형평성 등을 고려, 파견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는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각 시·군을 방문해 이해를 구하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2면

'전자칠판이 뭐길래' 업체 선정·보급 확대 적법성 쟁점 부상

팩트 체크

도 감사위, 내달 특정감사 결정
정책협력관 개입 여부 등 조사
교육청 "절차상 위법사항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전자칠판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자칠판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사전조사가 이뤄지고 감사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흘이다. 감사위원회는 전자칠판 지원 사업을 포함해 정보화기기 사업 전반에 대해 훑겠다는 계획이다.

▮특혜의혹 논란

쟁점은 특혜인가 여부다. 전자칠판 보급은지난1년여간교육청내부에서도이견이있었다.본지취재결과사업 세부 내용을 두고 담당부서(미래체육

2023년 전자칠판 보급사업 배급 결과

구 분	학교수(교)	합계(대)	예산(천원)
유치원(단설)	20	53	390,000
유치원(사립)	67	189	1,398,000
초등학교	222	924	6,920,000
중 학 교	115	478	3,651,000
고등학교	71	447	3,301,000
특수학교	3	30	236,000
합 계	498	2,121	15,896,000

특수교육과)와 정책협력관실은 여러 차례 대립했다.양측은제품기준을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책협력관실은 품질 담보를 위해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만든 우수조달물품제도 및 기술인증 활용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부서는 그렇게 되면 극소수 업체만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우수조달물품제도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위는담당부서가아닌정책협력관이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부서가 있는데 협력관이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대상이 도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유치원까지 확대됐는데 이 역시 법이나 조례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교육청에 감사 개시를 문서로 통보했다.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5일 입장을 낸 교육청은 "전자칠판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도감사위원회 감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시절에도 쟁점

본지 취재 결과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신경호 교육감 취임 전 인수위원회 시절 때도 한 차례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당시 인수위 내부에서는 전자칠판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모색하던 때였다. 인수위에서 활동한 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 당시 TV에 씌우면 전자칠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 설명을 들은 적은 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칠판 보급이 더 타당하다고판단해 진행했다"고 했다.

▮전자칠판 첫 사업부터 잡음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잡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청은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이유로전자칠판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58억원을투입해 498개교에 212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교부가 진행되고 있다. 수요조사 당시 집계된 2118대보다 3대가 더 늘었다.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해당 전자칠판 설치를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칠판 관련 업계에서는 "교체대상 중 20% 내외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둘러싼 논란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을 취소하는 학교도 있지만 소수인 데다 사유 역시 수업 특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전자칠판 지원 사업비 155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 사업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하면서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세현·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종합 01면

적자난 빠진 공공의료원 예산지원 촉구

도내 5곳 노조 대표 무기한단식
"코로나 이후 곳곳 임금체불 직전"

속보=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강원도내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본지 11월 14일자 4면 등)하자 보건의료노조가 단식 농성까지하며예산 지원을 촉구하고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공공병원 대표자 28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도내에서는 안숙현 강릉의료원 지부장,장용남 삼척의료원지부장, 원은주 속초의료원 지부장, 윤선영 영월의료원 지부장, 노은주 원주의료원 부지부장 등 5개 공공의료원 지부 소속 지부장 및 부지부장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감염병 전담병원으로지정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일반 환자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는데 정부가 공공병원을 '나 몰라라' 토사구팽했다"며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전략적 거점이어야 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내공공의료원의 경우에도회복되지 않은 병상 가동률 탓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83.6%에 달하던 도내 5개 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2023년 6월 기준 51%까지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5개 의료원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의료원 101억 9200만원, 강릉의료원 116억8200만원, 속초의료원 167억4800만원, 삼척의료원 130억5700만원, 영월의료원 146억91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숙현 강릉의료원 노조지부장은 "지금 당장 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체불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이고 직원 이탈과 인력 재수급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단식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0면

원주 평장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초읽기

도, 축산단지 일대 실태조사 완료
내년 1월 관리지역 지정 전망
기준 초과시 최대 과징금 1억원

속보=원주 소초면 평장리 축산단지와 일대의 악취 관리지역 지정(본지 9월 5일자 10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소초면 평장리 일대 축산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시간대별, 계절별 악취 실태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오는 13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축산단지 인근 6곳에 악취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악취 배출원 조사, 주변영향지역 조사(4계절) 등으로 진행됐다. 아직 결과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지점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하절기의 경우 악취가 보다 심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달 중 공고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악취 관리지역에서는 악취 기준 초과시 1차 개선권고,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조업정지 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평장리 일대 주민들은 장기간의 심한 돈사 악취로 인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원주시와 도에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주민들이 원강수 시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1500여명이 서명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집단 민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원주 첫, 도내 두번째 악취 관리지역이자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요청해 지정된 사례가 된다.

원용대 원주시의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축산단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아직 안심하기 이르지만 주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진행돼 주민들이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1면

"강릉 강문~안목해변 솔밭길 맨발로 걸어요"

시, 맨발 보행 3㎞ 구간 지정
낙엽·쓰레기 수거 안전 만전
지역관광 시너지 효과 기대

전국적으로 어싱(Earthing·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강문~안목 해변가 솔밭을 맨발 보행 구간으로 지정키로 해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 강문~안목 솔밭 약 3㎞ 구간을 맨발 보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내 팻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낙엽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미관 저해 시설물들을 철거했으며, 이달 중 강문과 안목솔밭에 흙먼지털이기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솔밭길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을 위해 황토길 사업 등을 고려했으나 실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솔밭길 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맨발 걷기 보행로 지정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신드롬이 일면서 해안가 솔밭에 맨발 걷기를 위해 찾아오는 시민·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관광객들은 "해안가 솔밭을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며 "바닷가를 맨발로 걷는 것은 효과가 더 좋은 '슈퍼어싱'으로 통하기 때문에 향후 강릉의 관광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동절기 시즌이 지나면 세족장 설치 등도 염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맨발걷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맨발걷기를 홍보해 강릉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5면

양구 파로·소양호 불법 어업 단속선 투입

5000만원 투입 1척 구매
내년 3월 본격 지도·단속
불법 유어행위 적극 대처

양구 파로호·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지난 11월말 도입된 지도·단속선 모습.

양구 파로호와 소양호 일대에 불법어로 차단과 효율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단속선이 뜬다.

양구군은 지도·단속선을 지난 11월말 파로호에 진수했으며 동결이 진행되는 겨울철을 지나 2024년 3월쯤 파로호·소양호 일대에서 본격 지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도·단속선은 파로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양호에도 투입된다.

군은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꾼과 관광 레저 인구의 무허가·유해어업 등 불법 유어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군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입했다.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의 크기로 무게는 0.95t이며,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은 지도·단속선을 활용해 △어업 질서 위반행위(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금지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도·단속선은 봄·가을철 희귀·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단속 지원과 산불 감시는 물론, 산불 발생 때 진화대원 이동 지원 등에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계자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행위,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지역 16면

고성 온천-한옥 접목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신평리 일원 '송지원 한옥마을'
한옥 독채·리조트·호텔 설립
조선시대 저잣거리까지 재현

동해북부선 개통에 맞춰 고성 신평리 일원에 '송지원 한옥마을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고성군은 사업자 이조(대표이사 이길수)가 올해초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 지난 4월 도청에 온천개발계획(하루 취수량 1790t) 인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부터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사업(이하 송지원 한옥마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공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4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송지원 한옥마을은 토성면 신평리 산 100번지 일원 23만5369㎡(7만1199평)에 숙박단지와 한양거리가 조성된다.

숙박단지는 한옥과 온천을 접목한 독채 한옥, 20층 높이 현대식 리조트, 한옥 호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거리는 한성부 대로인 육조거리와 조선시대 상가 시설인 저잣거리가 그대로 재현돼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은 송지원 한옥마을이 운영되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산유발 1896억원, 부가가치 1032억원, 6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8년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 국내 최대 규모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A씨는 "조선 시대 한양거리 등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다면 한류 열풍을 타고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고성군 이조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도청에서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사업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지산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사회 04면

횡성 가축경매시장 폐쇄 장기화 … 축산농가 시름

럼피스킨 여파 54일간 400여마리 출하 대기, 거래 금액만 14억
당국 수송 차량 이동 제한 등 방역대 엄격 통제 현실과 동떨어져
8일 조건부 재개장 잠정 합의… 가격 폭락 등 부작용 여전히 우려

속보=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폐쇄 장기화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지역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10월19일 충남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하면서 전국 가축경매시장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열흘 간격으로 개장해 온 횡성 가축경매시장도 10월12일을 끝으로 54일간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이 50여일이 넘도록 폐쇄돼 있다. 5일 재개장이 불발되면서 여전히 텅 비었다.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축산농가들이 가축경매시장을 통해 출하해야 할 송아지와 큰 소 400여마리가 거래되지 못했다. 거래 금액으로만 14억원에 달한다. 사육비 증가와 적기 출하를 놓쳐 발생하는 가격 하락 등의 피해도 극심하다.

이에 횡성축협은 축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5일 재개장(본보 5일자 11면 보도)하기로 했지만 축산 당국이 '가축시장에 소 출하를 위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24시간 이내 다른 축산시설 방문이 없어야 한다'는 지침을 고수해 무산됐다. 축산농가들은 축산 당국의 지침은 10여대의 수송 차량이 농장을 순회하며 경매할 가축을 한꺼번에 수송하고 있는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횡성축협은 5일 경매 가축 운송 차량이 출하 농가를 순회할 때마다 반드시 자체 소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경매시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일단 8일 횡성 가축경매시장을 개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밀린 경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는 "무작정 가축경매시장을 폐쇄하기보다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장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열흘 간격으로 열리던 가축경매시장을 닷새 간격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사설/칼럼 19면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이젠 실천으로 옮겨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14일 동안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세계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이는 향후 지역 발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행사가 아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진정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전열을 가다듬고 붐을 조성해야 한다.

마침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의 꽃인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SHINE CREW)'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강선구 정선부군수,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동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준비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한편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철저히 복기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폭염, 침수, 해충, 의료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공항, 고속도로 등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만 주력하며 정작 행사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은 날씨가 춥다. 예정된 모든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한파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해 참가자 전원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이고 개최 시·군은 자존심을 걸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SHINE CREW)' 발대
> 세계 동계스포츠 성지 확고한 위상 제고를
> 혹한 등 위기 상황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때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사설/칼럼 19면

'장관직 지역 균형'도 엄중한 민심

-6개 부처 개각서도 강원 출신 없어 도민 허탈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사실상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개각은 내년 총선 맞춤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원 출신 인사가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도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지역 안배라는 기대를 외면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1기 내각에 이어 또다시 '강원 무장관'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관료와 전문가를 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내정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기용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 후보 5명은 정통 관료나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해 실무형 개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인들이 떠난 자리를 관료와 전문가로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에 대한 안배입니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3명을 여성으로 기용하면서 '여성 중용' 개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의 발탁은 여성계 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강원 출신 인사가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내정된 장관의 출신지는 서울 3명, 부산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명됐던 삼척 출신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막판 입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강원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무장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추가 장관급 인선에서도 도 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개각에 있어 지역 균형은 직군이나 성별, 경험, 전문성만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각료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특정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정치적 사안입니다. 도민들은 추후 개각의 향배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6일 (수)
사설/칼럼 19면

도교육청 전자칠판 획일 추진 재고해야

-기기 걸맞은 교수-학습 방식 충분해야 효용성 커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전격적으로 전자칠판을 대량 보급하는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필요한 기기 현황을 파악해 구비하는 것이 대개의 절차인데 도교육청이 전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다가 일시에 투입되는 비용이 160억원에 육박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엔 유치원부터 전자칠판을 보급하라는 도교육청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및 전교조 강원지부,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성명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영상과 음향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이고, 디지털 기반이 잘 조성돼야 나중에 인공지능(AI) 교육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으로 확대한 것도 전자칠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보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므로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전자칠판을 일부 사용 중이긴 하지만, 문제는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자칠판은 인터넷,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 구성해 학습에 활용하는 기기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장 큰 장점인데 단순히 전자칠판 교체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곧 교사와 학생이 각기 만들어낸 콘텐츠로 상호 작용하는 장점을 발휘하려면 학생 스마트폰까지 연동되는 환경이어야 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교수-학습 방식이 적용돼야 실효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칠판에 적용하는 첨단기술은 하루게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70만원대로 고가이고 내구연한은 7년에 불과해 예산 낭비를 우려합니다. 전자칠판으로 인해 다른 디지털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국고가 줄어 긴축재정으로 돌입한 때이므로 도교육청은 전자칠판 활용도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기에 걸맞은 교수-학습방식 구현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병행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6일 (수)
사설/칼럼 19면

내년 초교 입학생 수 道 1만명 붕괴, 대책 시급하다

내년 도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및 출생아 수 등을 근거로 추정한 2024학년도 도내 초교 1학년 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660명 감소한 9,883명으로 예측됐다. 10년 전인 2014년 초교 입학생 수(1만3,697명)와 비교하면 3,814명(28%) 줄어든 것이다. 초교생 수가 급감한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 3분기에도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이보다 낮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교 입학생 수가 하락하자 도내 교육계는 도시 유학생 유치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대상 인원을 올해 2학기 50명보다 두 배 증원한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을 유치해 농어촌지역과 학교의 소멸을 막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시 유학생 33명 중 1명을 제외한 32명이 내년에도 연장 신청하면서 지속가능성도 입증됐다. 문제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도내 학생 수 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뿐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떠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서 교문을 닫아야 할 학교가 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에 화천초교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교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교 흘리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상당수에 달해 이들 학교도 수년 내 신입생이 없는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 지자체와 도 교육 당국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초교생 수의 급락은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관심을 갖고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